

안양시
석수도서관
도서관 탐방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그 중심에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서가 있다

도서관 가는 길

아직 겨울이긴 하지만 봄 햇살 같은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던 날 사무실을 나서 안양시 석수도서관을 찾았다.

석수도서관은 얼마전 신문 기사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친숙하게 느껴오던 곳이었지만 실제로 방문하게 되어 기대감으로 설레었다.

2005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도서관경영평가 부분에서 최고의 점수로 안양시 석수도서관이 선정되었다는 보도 후 석수도서관 직원이 방문을 요청했다. 우리팀도 석수도서관의 성과를 전국에 있는 많은 도서관인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석수도서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첫인상



〈안양시 석수도서관 전경〉

어찌나 크고 깨끗하던지 건물을 올려다본 순간 우리는 그 웅장함과 산뜻함에 압도당했다. 도서관 입구에 들어서니 정면에 크게 걸려있던 현수막... “함께 만드는 도

서울에서 한참을 가다보니 차창 밖으로 약속터가 눈에 띄고 웅장한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다.

설마... 저 건물이 도서관? 하고 잠시

생각에 잠기던 그 때 ‘안양시 석수도서관’이라는 현판이 보였다.

서관 함께 누리는 밝은 미래”. 그 오른쪽에도 “찾는 도서관 세계로 가는 길”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석수도서관의 많은 부분을 짐작케 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안양시의 권역별·연차별 도서관 건립 계획



〈정문택 관장〉

1층 로비에는 안내데스크와 원화전시회, 자료 이용을 위해 분주하게 왔다갔다하는 이용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중간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선 4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정문택 관장과 유옥환 팀장을 비

롯해 많은 직원 분들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관장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준비해 간 질문지를 보며 도서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양시에는 1992년에 만안도서관을 시작으로 1994년 평촌도서관, 1998년 호계도서관, 2003년 12월에 석수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현재 4개 도서관이 있다.

그 중 석수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3,220평), 장서 17만 여권으로 안양시 도서관 중에서 최대인만큼 개관을 준비하는데도 여러 해가 걸렸고 많은 노력이 들었다고 한다.

안양시는 도서관 건립에 따른 중장기 기본건립계획을 세우고 연차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작은 도서관을 권역

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2월에는 범계동에 전국 최고 규모의 어린이도서관 건립작공을 앞두고 있고 비산동과 관양동 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석수도서관의 관장 이하 직원들은 '지역 내 좋은 도서관 만들기'에 열중하며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석수도서관의 경영 노하우 넷

석수도서관은 현재 하루 평균 3,500 여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직원은 총 35명, 이중 사서직원은 관장 포함 15명이다. 이용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이에 석수도서관에서는 나름대로 운영방법을 강구했는데 그 첫 번째가 자원봉사자 모집이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 많은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그 결과 첫 해에 86명이나 모집됐다고 한다. 현재 이들을 청소년층, 학부모층, 실버층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기록을 누적하게 해주고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였다.

노하우 둘, 유아들이 도서관에서 동화구연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한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어머니 동화구연교실을 개설하게 되었으며 교육을 수료한 어머니들이 중심이 되어 “안양동화놀이터”라는 자원봉사단을 결성하였다. “안양동화놀이터” 자원봉사단은 안양시의 도서관과 노인복지센터 등을 찾아다니며 시낭송, 동극, 동화구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순회 공연을 함으로써 행복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간단하고도 명료한 명제를 떠올리게 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셋, 도서관직원들 간에 “도서관발전 소모임”을 작년에 만들었다고 한다. 사서들은 모두 참여하고 사서직 이외에는 각 팀에서 1~2명씩 참석하는 형태로 민원분석팀,

장서개발팀, 이용자 환경개선팀, 문화행사팀으로 나누어서 팀별로 자체적인 모임을 갖고 업무를 분석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도서관 발전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한다.

넷, 2005년 9월부터 “도서관종합관찰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로 공동업무부문이라서 자칫하면 소홀하기 쉬운 부분의 일을 서로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도서관 내·외적인 부분을 직원 각자가 관찰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오류가 났어도 도서관에서 이 업무를 맡은 직원은 단 1명 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일일이 살피기 어려울 때가 많다. 홈페이지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수시로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도서관 복도에 휴지가 떨어져 있거나, 화장실 문이 고장났을 경우 등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도서관에서 문제점들이 생기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서관종합관찰제”를 통해 직원 모두가 ‘종합관찰자’가 되어 그 임무를 다한다.

안양시 4개 도서관 사서들과의 연계

석수도서관에서 뿐만이 아니라 안양시 평촌, 만안, 호계도서관 등 4개 도서관 사서 34명이 함께 하는 모임도 있다. 한 달에 1번씩 모여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책을 선정하여 주제별 서지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주고 내용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 내에서도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도서요약서비스와는 별개로 사서들이 직접 책을 고르고 소개해주는 코너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듯 안양시 전체 사서직이 독서정보평가단을 구성하여 매일 다양한 독서정보를 제공하는 독서정보요약서비스는 안양시 혁신과제 발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음으로써 도서관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한다.

또한 안양시 4개 도서관에서는 자료특성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석수도서관은 순수과학과 전자매체자료를, 평촌도서관은 사회과학과 향토자료를, 만안도서관은 기술과학분야를, 호계도서관은 문학과 논술, 창업자료를

중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도서관 정면 현수막에 적혀있듯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안양시 사서들의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별 스케치 I

석수도서관과 안양시 도서관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고 나서 사진촬영도 하고 실제 석수도서관의 이모저모를 살피기 위해 유옥환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4층에서부터 천천히 도서관을 둘러보았다.



〈멀티미디어체험실 내 디지털나비관〉

4층에는 멀티미디어체험실이 위치하고 있었다. 멀티미디어체험실에는 미니천체관, 모핑실험실(모니터에 나타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변신, 변형시켜 모핑 현상을 체험하는 코너), 가상과학실험실, 사이버물고기(3차원 입체디지털 물고기를 관람객이 직접 만들고 먹어도 주는 체험 공간), 디지털나비관, 영상 체험실(자신이 출현한 모습을 관찰, 방송국에서 하는 일과 과정을 체험), 컴퓨터 음악실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4층 복도 활용 공간에는 원화전시회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3층에는 디지털도서관이 있었는데, 전자매체자료를 특성화하고 있는 도서관답게 굉장히 큰 규모의 디지털 도서관이 운용되고 있었다. DVD, VOD, 전자책 등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 E-book, 원문검색, 문서편집, 이미지편집, 노트북, LAB/VTR석, 스캐너, 위성방송, 온라인강좌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만큼 실 전체가 이용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디지털도서관〉

2층에는 참고·연속간행물실과 종합자료실이 있었다. 참고·연속간행물실에는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들의 도서를 볼 수 있는 ‘외국자료코너’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종합자료실에는 ‘60만권 도서모으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기증한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어린이도서관〉

1층에는 어린이도서관과 유아방, 이야기방, 어른신방, 관외대출실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어린이도서관에는 어린이도서 및 유아도서, 어린이 간행물, 어린이인터넷코너가 있었다. 유아방은 만 6세 이하의 유아 및 학부모가 이용하는 곳으로 편안한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자원봉사 어머니 회원들이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교실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야기방에서는 동화 속 공간 같은 책 읽기 부스를 마련해 자유롭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어르신방은 어르신을 위한 편안한 문화공간으로 소설류 및 건강생활을 위한 간행물을 비치하고 있다.

1층 복도 끝에는 관외대출실이 위치하고 있었다. 관외



〈관외 대출실 내에서 무인자동대출코너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대출실은 초등학교 이상이면 이용하는데 일반 다른 공공도서관들에서 흔히 종합자료실이라고 불리는 곳과 같은 기능을 한다. 전 주제의 도서가 비치되어있으며, 무인자동대출코너, 자료검색코너 등을 마련해놓고 있었다. 관외대출실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이 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실을 따로 구성해 대출·반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곳에는 신착도서, 희망도서 등이 즐비하게 꽂혀 있었다.



〈독서정보게시판〉

1층 관외대출실 앞에는 큰 벽면에 독서정보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큰 벽면 하나가득 신착도서에 대한 소개, 사서가 추천하는 책들에 대한 소개, 파피루스부터 e-book까지의 책 변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꾸며놓은 게시판. 이 모든 것이 모두 사서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만든 것이라...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 밖에는.... 역동적인 그들의 모습에 감탄 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서, 도서관의 미래를 여는 힘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최첨단 도서관, 함께 하는

도서관... 그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도서관...

이 모든 것은 관장 이하 도서관 직원들의 열정이 그대로 묻어난 것이라 생각한다. 도서관을 다 둘러본 후 다시 4층 사무실로 향하면서도 도서관 직원들의 정성이 곳곳에 배어있는 곳이라 생각하니 다시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뒤돌아 살펴보았는지 모른다.

정문택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도 그 말씀에 동감했다.

도서관을 지역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사서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지역 주민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식, 생활수준, 지역특색,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서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 사서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창의력과 이슈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결국 도서관을 움직이는 힘도, 이용자를 움직이는 힘도 사서들의 몫인 것 같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서야말로 도서관을 역동적으로 이끄는 핵심요소이자 도서관의 미래를 여는 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도서관이 가장 많고, 지자체 도서관도 가장 많다. 최근 해마다 수많은 도서관 건립 계획을 세우고 도서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문택 관장이 경기도 사서협의회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혁신적인 자세로 지역 내 도서관이 연계하여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석수도서관의 사례는 다른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델로 삼을 만하다. (출처: 심효정, 사진: 최인경)